

백혈병

백혈병은 혈담이라하여 골수암의 일종인데 수술 또는 약물로 수명을 연장하거나 치료하고 있으나 완치가 거의 어려운 질환이다.

한방에서도 백혈구나 적혈구의 감소현상으로 녹용과 녹각을 합해서 치료하는데 보혈과 칼슘보충을 또는 청혈시킴으로써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하다.

본 필자의 임상경험으로 거북이와 자라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좌골신경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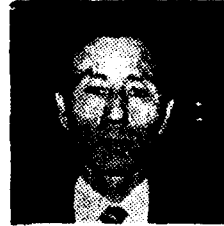
좌골신경통은 요추에 추간판이 탈출되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뻣기는 증상이다. 심한 경우 잠을 이룰수 없도록 통증이 심하다.

좌골신경통의 원인은 타박이나 교통사고도 있으나 주 원인은 신장기능이 약해서 생긴다. 신장이 주관하는 기관은 모든 뼈, 관절, 치아, 머리, 귀, 눈동자, 손톱발톱, 물을 저장하고 빼주는 작용까지 다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에서 키크는 약을 쓸때 신장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녹용하대와 녹각이 절대적이다. 특히 좌골신경통은 부인에게 많다. 산후조리 부족이나 다산 과로 탓이다. 육미지황탕 등에 녹용을 가미하여 사용하면 완치될수 있다. 이와같이 녹용은 보약으로만 쓰여진다는 오해가 있는것 같으나 절대적으로 치료제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녹용의 수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산 강용을 만주나 이북등에서 가져와 어느 환자나 값싸게 복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江茸이라하면 사슴이 그리 크지 않고 사슴뿔의 질의 강도가 강하고 강원도에 서식하였는데 6.25의 참변으로 이남에는 멸종된 것으로 안다.

4. 유통현황



崔 俊 燮
(한약도매협회장)

녹용은 아주 옛날부터 탁월한 효능이 인정된 한약재로 국내 생산량이 미약하여 다른 한약재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어 왔으며 국내 소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녹용의 수입량은 1980년대 초에는 연간 약 10t에 불과했으나 국민 소득증대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연간 106t의 녹용이 수입되었고 금액으로는 4천3백만 달러를 넘는 등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녹용은 산지와 사슴의 종류에 따라 약효에도 차이가 많은데 국내에 수입 유통되고 있는 녹용은 소위 원용(元茸)이라 불리는 시베리아산 馴鹿의 뿔을 비롯하여 2지 매화록(화용), 마록(갈갈이), 3지 매화록, 적록 등이며 녹용 수입 초창기에는 원용과 화용만이 유통되기도 했다.

주요 수입 대상국도 처음에는 중국과 소련 두나라에 국한되었으나 지금은 뉴질랜드와 미국은 물론 동유럽에서도 수입하고 있는 등 수입선이 다변화되고 수입량은 뉴질랜드산이 가장 많으며 중국, 소련, 미국 등지에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개방화로 소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현황 및 문제점

정부에서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녹용을 의약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시 약 200%에 달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행되었다.

높은 관세로 인해 녹용의 가격은 고가를 형성하여 일부 특수층만이 복용하고 일반 대중은 복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특정인들의 전유물처럼 인식, 이로 인해 한탕주의에 젖은 일부 상인들의 밀수가 성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 해외 여행자들도 귀국할 때에는 녹용을 필수품으로 인식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입하였다.

또 녹용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생산지의 기술 부족으로 안정된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의약품에 대한 개념이 없는 비전문인이 유통을 담당함으로써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착색 등 변조 행위로 자행돼 엄청난 사회문제로 자주 비화되기도 했다.

이렇듯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녹용 수입업체에 가담하게 되었고 외국에서 국내 업자끼리의 과당 경쟁으로 녹용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제살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녹용 유통에 관심을 갖고 녹용의 유통 질서 확립과 양질의 녹용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 84년부터 녹용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우황사향, 주사, 녹각 등을 포함하는 고가 한약재 관리규정을 마련, 수입시 전문인으로 구성된 한약재 감별위원회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지정 고시하는 등 관리 체계를 수립했다.

녹용 수입업자들도 우리나라가 전세계 녹용 교역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녹용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녹용

의 품질 향상과 가격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연도별 녹용 수입 현황

연 도	수 량 (kg)	금 액(US\$)
1978	1,913	493,982
1979	9,542	3,943,696
1980	14,574	6,558,300
1981	17,981	8,170,454
1982	24,053	8,716,720
1983	22,393	7,264,628
1984	16,902	6,338,110
1985	21,362	7,565,221
1986	23,801	7,940,261
1987	30,925	9,405,756
1988	44,428	14,610,944
1989	49,456	20,254,739
1990	46,544	23,900,422
1991	829,290	34,301,233
1992	106,448	43,931,527

그 결과 80년대 kg당 800~1000달러에 달하는 녹용 가격이 현재는 kg당 300달러 선으로 하락시키는 등 가격 인하와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외화를 크게 절약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저렴한 가격의 공급으로 국민 보건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최근들어 정부와 관련업계에서는 녹용의 효능과 성분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그동안 약효의 유무로 논란이 많았던 시베리아 및 알래스카산 레인디어 뿔(마용)을 한약규격집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용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수입도 규제키로 하는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녹용 수입시 약효가 떨어지는 하대(하단부분)는 제외하고 중·상대만 수입키로 결정하는 등 양질의 녹용 공급에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

개선방향

현재 국내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수입 녹용은 원형대로 수입된 후 약재 감별위원회 의 검사를 마친다음 적당한 크기로 절단 유통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녹용에 대한 감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가공 절단하여 규격화 된 제품을 검정기관의 공인을 받은 후 유통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양질의 한약재 공급과 유통 및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일원화와 규격화 사업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녹용도 규격화 대상품목으로 포함시켜 가공업소에서 규격화된 제품이 도매업소를 거쳐 유통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양록 농가에서 생산되는 녹용은 절단시 녹혈과 함께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생상의 문제점도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국내산 녹용에 대해서도 유통일원화와 규격화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품질도 보증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또 과거 200%에 달하던 녹용의 수입 관세가 많이 인하됐지만 아직도 약 50%라는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밀수가 근절되지 않음으로써 가격 질서가 문란해져서 정식 수입업자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밀수품의 품질 확인이 매우 불투명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 향상 추세와 녹용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는 소비자인 국민이나 수입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녹용이 의약품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세무 정책의 개선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녹용제제 개발 현황과 전망

보약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녹용의 수요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 지난해 수입량이 10만kg을 넘어섰다. 경제성장과 함께 늘기 시작한 녹용수요가 80년대말들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90년도 4만6천kg에 금액으로는 2천3백90만 달러였던 것이 91년도에는 8만3천kg으로 무려 1백80%나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3천4백70만달러로 1백23%나 늘어났다. 또 92년도에는 10만6천kg에 4천7백93만 달러로 물량은 1백43% 금액은 1백14%가 늘어나는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이처럼 녹용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녹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녹용의 약 80%를 소비하는 최대 녹용 소비국이란 호칭이 결코 과장된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녹용이 옛날에는 보약이란 관념이 지배적이었으며 워낙 고가여서 일반 서민들은 복용해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값비싼 약이었으나 최근들어 국민소득이 는데다가 녹용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져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거리가 좁혀진 것이 수요가 폭발하게 된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녹용이 보약으로서 예방적 기능과 함께 치료제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임상보고가 잇따르게 된것도 수요 촉진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녹용이 백혈병등 난치질환이나 폐결핵, 당뇨등 소모성 질환등에 효과가 있는등 치료제로서 효용도가 높은것으로 밝혀기 때문이다.

녹용의 수요를 부채질하는 또다른 요인은 국내 제약업계에서 생약제제 개발에 눈을 돌려 앞다퉈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서도 찾을 수 있다.

물질특허도입과 관련 제약업계가 생약제제쪽에 관심을 쏟으며 특히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녹용을 함유한 제제 생산에 열

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녹용을 함유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이 제약회사 등에서 경쟁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생산중인데 의약품으로 처음 생산된 것은 한림제약의 호르반으로 지난 89년 8월부터다.

이후 각 메이커마다 앞다퉀 품목허가를 받아 현재 녹용제제를 생산한 곳이 50개사가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제약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녹용제제 생산액도 그 규모가 결코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한림의 호르반이 9억9천7백만원으로 10억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동아의 녹황보가 6억8천만원 녹십자의 신력보 4억3천3백만원 등의 생산실적을 나타내 이 시장도 1백억대 시장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황청심환에 이어 은행잎 제제 다음으로 이 녹용제제가 품목허가와 판매경쟁을 벌일 제품으로 꼽히고 있어 앞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점치고 있다.(주요품목 생산실적 별표참조)

외국문헌등 참조 허가

이들 녹용제제는 대부분 고전이나 외국 문헌등을 참고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거쳐 품목허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보건원에서 안전성 검토는 보사부 안전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웃 중국의 경우 녹용액을 추출한 녹용 주사제등을 생산하는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방에서 水針이라고 해서 녹용 원액을 추출, 인체에 직접주입하는 水針요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녹용 주사제는 없는 실정이다.

제품다양화 도모

녹용함유제제와 별도로 호범생약(대표

白仁範)이 녹용 단일제제로 의약품 허가를 녹용함유제제와 별도로 호범생약(대표 白仁範)이 녹용 단일제제로 의약품 허가를 위해 10여년간 물심양면의 갖은 고난끝에 지난 2월10일 국내 최초로 녹용부분말제조 허가를 얻어업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녹용제제 생산현황

단위 : 천원

회 사 명	제 품 명	
신풍제품	기 선 액	26,000
	기 성 천 Cap	113,015
동신제약	선 용 보 액	108,096
	엘 코 진 Cap	269,352
광동제약	광동감미구용탕	300,346
대웅제약	용황봉삼정 Cap	126,049
한림제약	녹 신 정 Cap	44,722
	호 르 반	997,614
녹 십 자	실 력 보	433,264
한성제약	한 독 정	18,513
동아제약	녹 황 보	682,305

이 건조녹용은 동결건조방식을 이용한 녹용건조공정을 거쳐 이물질이 전혀 없는 천연그대로의 동결건조품으로서 다리지 않고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복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녹용의 동결건조방법은 사슴에서 짜는 생뿔을 섭씨 영하70도로 급속 냉동후 섭씨 영하 50도, 섭씨 영하 30도, 섭씨 영하 20도로 1시간씩 단계적으로 냉동조절하여 섭씨 0도로 온도를 상승시켜 절단한 후 무균상태에서 진공건조기로 건조하는 방법으로 동결건조녹용은 약간 붉은 색을 띠어 생녹용을 연상하게 하며 녹혈까지 원형그대로 보관되는 것이라는 것.

白仁範씨는 이 연구결과를 특허청에서 제출하여 박판녹용제법특허를 비롯 녹용분말제조방법특허, 달이지 않고 복용하는 녹

용분말제조방법등 3개의 특허를 획득하여 국산녹용건조연구의 개가를 올렸다.

白씨가 이 녹용분말의 제조허가를 얻기까지는 술한 고난을 겪어야 했으며 한때는 포기해 버리겠다는 자포자기의 상황까지 직면해 버리기도 했었다는 것.

녹용을 의약품으로 허가하기 위한 허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까지 이 작업을 시작한 탓으로 어려움이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녹용을 의약품으로 허가받기 위해 대학 등 연구기관에 녹용에 대한 성분분석등 각종 연구를 의뢰하는 등 10여년간 끈질기게 추진, 허가에 필요한 모든 뒷받침을 수행, 분말녹용 생산허가를 얻어낸 것.

녹용단일제제로 의약품 허가를 받은 이 분말녹용은 빈혈, 신경쇠약, 병후쇠약, 성장발육촉진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토록 돼 있다.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家産을 탕진하며 추진한 집념이 빛을 봐 한편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몹시 허탈해 하는 그는 녹용분말의 의약품 허가를 위해 사슴농장 하나를 廢舍시켰으며 사슴수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국내 녹용의 활용도를 높이고 막대한 외화를 절감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시작한 일인만큼 추호도 후회는 없다는 그는 이 건 조녹용분말의 효능을 인정해 주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 최대의 바람이며 금년중으로 또다시 사슴 10여마리를 풀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년 5월17일 소록도 나환자촌에 자신이 사육하던 꽃사슴 5마리를 섬안에 풀어준 것을 비롯 이제까지 90마리를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주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사슴은 약 17만마리로서 연간 3만kg의 생녹용이 생산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녹용은 일반 상품화되지 않은채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슴뿔 절단시 나오는 녹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때 이 녹혈과 함께 녹용도 함께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따라서 녹혈도 중요하지만 녹혈 채취시 얻어지는 녹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양륙업계 주변의 지적이다. *

